

2020 주일메세지

나는 포기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1.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사람'이다. 사람이 누구인가? 이것은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다. 결국 이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로 정의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정의함으로 시작한다. 하나님의 숨결로 생명을 얻은 사람이 의미있는 이유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은 의미있고 가치가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디모데후서 1:9에 기록되어 있다.

[디모데후서 1:9]

9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9 who has saved us and called us to a holy life—not because of anything we have done but because of his own purpose and grace. This grace was given us in Christ Jesus before the beginning of time, (NIV)

(1) 구원과 부르심

디모데후서 1:9절에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이라고 되어있다. 구원받았다면 명심할 것은 부르심도 있다는 말씀이다. 구원과 부르심은 연결되어 있다. 부르심이 없는 구원은 없다. 구원은 하나님 형상으로의 온전한 회복을 의미한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삶의 목적과 의미'를 명확히 아는 것이다. 구원받았는데 부르심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구원받은 의미가 무엇인지 질문해야 한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반드시 발견해야 한다.

(2) 부르심은 거룩한 삶을 살게 한다.

우리의 부르심은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말씀에 보니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 이라고 되어있다. 영어 번역으로 보면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다고 되어있다. (who has saved us and called us to a holy life)

거룩한 삶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금욕'하는 종교생활이 거룩한 삶이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말한다. 부르심의 성취를 위해 피나는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 운동선수가 목적을 위해 훈련을 하는 삶, 절제, 몸을 단련시키는 훈련이 거룩한 삶이다. 부르심에 최적화된 삶을 사는 일을 말한다. 얼마나 명확한 정의인가? 부르심에 응답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이 정의가 너무나 명확하다.

(3) 내 안에 거룩한 '소명'이 있다는 사실은?

부르심에 있어 주목해야 할 것은 '영원 전부터 (before the beginning of time)'라는 말씀이다. 이 부르심은 영원 전부터 있었다는 것이다. 내가 태어나기 전, 내가 태어난 후 나의 삶 전체에 있는 부르심은 이미 영원 전, 시간 전에, 창조 전에 계획된 일이라는 사실이 경이롭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즉 사람을 향한 '계획과 목적'이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세상의 시작 - 모든 것이 우연이다. 빅뱅, 진화론 등)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다"

2. 부르심 안에 있는 영적원리

(1) 부르심을 발견하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다.

추상적 구원으로부터 나오라. 부르심을 발견하라. 부르심을 발견할 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 인지를 분명히 알게 된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

(2)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부르심의 속성을 알게 된다.

[디모데후서 1:9]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내가 나의 능력을 볼 때 상황과 환경에서 부족함을 느낀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르심을 자신의 능력치와 비례하여 생각한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부족한 나의 능력이지만, 하나님은 순종하여 훈련하는 나를 그분의 은혜로 그 부르심의 자리로 옮겨주신다.

‘다윗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준비된 자이다’ 열심히 준비했다. 다윗의 물맷돌은 전쟁하기에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다윗을 골리앗 앞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은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신다. 이것은 다윗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이다.

‘성경을 보라. 하나님이 사용하신 자들은 약한 자들, 자격없는 자들임을 명심하라’ 제자, 사사들, 목동 다윗 등이다. 그래서 부르심은 자기 능력으로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낮은 자존감이다. 그래서 더 자기 노력에 의한 성취에 매달린다. 그것은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다. 은혜를 아는 것이 자존감이 회복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노력하지만 항상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감사하며 은혜를 구한다. 결국 하나님이 성취하게 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삶이다.

부르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생각, 나의 비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나를 리뉴(renew)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3) 부르심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

부르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부르심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아는 것이다. 내가 어떤 물건을 팔 때 그 물건에 값을 책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주님이 나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그분의 전부를 지불하고 나를 사셨다는 사실이 그 증거이다.

그 사건은 죄인이었을 때, 탕자처럼 누더기를 걸친 망한 자가 되었을 때, 거울을 본 나 자신이다. 구원은 누더기가 벗겨지고 새 옷으로, 영광의 얼굴로 회복된 내가 다시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하는 것이다. 그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추면 우리 모습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말씀에 비추어야 한다

[고린도후서 3:18]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3. 부르심에 응답하여 요나처럼 바다에 던져져야 폭풍이 잠잠해진다.

요나의 부르심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라. 요나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가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자가 되어 배 가장 밑에서 모른척하고 자고 있어도, 하나님은 요나를 추적하신다. (숨어도, 모른척해도, 자기 의지와 상관없는 제비 뽑기가 있어도) 그 이유는 하나이다. 요나 안에 니느웨를 구원해야 할 부르심이 있기 때문이다.

요나가 응답할 때 결국 그는 바다에 던져졌고, 그로 인해 풍랑은 잠잠해졌다. 이 땅에 풍랑이 있다. 어떤 누구도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이때 교회와 성도들에게 물으신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다.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들안에 있는 부르심의 소명을 상기시키신다. 그리고 부탁하신다.

우리가 바다로 뛰어 들어가야 풍랑은 잠잠해진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안에 있는 부르심을 회복하자. 그리고 니느웨로 달려가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자.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제 우리가 이 풍랑 속에서 응답해야 때이다.